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말이산고분군 末伊山古墳群을 세계문화유산 世界文化遺産으로...

Preparing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Haman Marisan Tumuli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과 소유권,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가치를 지닌 유산’을 말하며, 유네스코(UNESCO)의 승인을 받아 등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해당 유산이 ‘인류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Outstanding Universal Value)’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 세계 163개국, 총 1,031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국은 12건 (문화유산11, 자연유산1)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012년 4월, 잃어버린 가야 문명의 흔적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이 ‘잠정목록 신청 후보’로 선정되었고, 이어 2013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회의에서는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2015년 3월 대한민국 문화재청으로부터 김해 대성동고분군(금관가야 왕릉), 고령 지산동고분군(대가야 왕릉)과 함께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우선 등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말이산고분군은 2018년께 ‘가야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야 유산.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유산으로 우뚝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가야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가 빼어난 유적으로 판단되어 신청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2013. 8.

